

# ‘삼학도 三樂’으로 섬의 날 분위기 띄운다

(보고, 타고, 먹고)

## 다음달 8일 '제1회 섬의 날' 행사

- 1樂... 풍어제·페스티벌 다채
  - 2樂... 카누·카약·요트 체험
  - 3樂... 목포 5미 황홀한 맛
- 백일홍 100만송이 만개 장관



8일 제1회 섬의 날 기념행사가 펼쳐지는 삼학도에 100만송이 백일홍과 해바라기 등이 만발해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대한민국 섬 페스티벌 행사를 10일 앞두고 막바지 조정 작업이 한창이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다음달 8일 제1회 섬의 날 기념행사가 열리는 삼학도에 100만송이 백일홍이 만개해 장관을 연출하면서 '삼학도 삼락(三樂)'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삼학도 삼락은 삼학도에 집약된 관광 인프라로 한 해 순수 관람객만 80만명을 넘어서는 등 새로운 목포관광 거점으로 부상, 3가지(보고, 타고, 먹고)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생겨난 신조어다.

삼락 가운데는 보는 즐거움이 으뜸이다.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과 어린이 바다과학관 등 기존 관광인프라에 이번 '대한민국 섬 페스티벌' 일환으로 열리는 행사까지 불거리가 풍성하다.

섬 민속 경연대회, 섬 주민 풍어제, 어선 퍼레이드 등 비롯해 프레 세계 마당페스티벌, 세계 폼바 페스티벌, 플라이 워터 쇼, 섬과의 소통 조각전 등 공연·전시도 눈여겨 볼만하다.

섬 민속 경연대회는 섬 별로 전해져 내려오는 전통 민속 문화(풍어제·출어제)를 선보이는 것으로 섬의 날 행사의 하이라이트로 꼽힌다. 거문도 뱃놀이(여수), 조도 뱃놀이(진도), 비금 뿔뿔기 강강술래(신안), 생일 발광대(완도), 강화도 농악(인천), 제주 해녀공연 등 12개 시·군이

참여해 경연을 펼칠 예정이다.

'풍어의 북소리'라는 주제로 사물놀이와 함께 만선을 기원하는 섬 주민 풍어제와 화려한 깃발과 조명으로 장식한 5급 어선 20척이 여름밤바다를 행진하며 펼쳐지는 어선 퍼레이드도 놓쳐선 안 될 볼거리이다.

프리 세계마당페스티벌에서는 바다와 섬을 테마로 한국·말레이시아·필리핀·캐나다·브라질 등 6개국의 공연예술가들이 참석해 '신나는 저글링' '코믹마임' '바탄댄스' '타악 퍼포먼스' '물고기 향연' '서커스아트' 등을 통해 관광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목포시립교향악단 60명과 함께 국내의 폼바들이 모여 협연을 펼치는 '세계 폼바 페스티벌'도 관심 대상이다.

또 삼학도 메인무대 해설상에서 하이드

로 플라야와 수상오토바이 프리스타일 묘기를 선보이는 '플라잉 워터 쇼'가 펼쳐지며, 목포 출신으로 이탈리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세계적인 조각가 박은선의 '섬과의 소통 조각전'도 신나는 볼거리이다.

타는 즐거움으로는 삼학도 수로 카누·카약 체험과 요트 향해가 대표적이다.

2인승 카누와 카약 10대씩 20대가 비치됐다. 직접 노를 저어 수로 길 1km를 돌아오는 프로그램으로 약 1시간이 소요된다. 타는 즐거움의 백미인 요트 향해에는 목포시와 세한대 요트 등 총 3대가 관광객을 기다린다.

요트향해 코스는 요트마리나-3함대-몽화도-목포대교 조망-요트마리나 구간으로 40분이 소요되며 하루 5회(오전 10시, 11시, 오후 2시, 3시 4시) 운행된다. 현장

접수가 원칙이고 무료다.

'먹는 즐거움'도 빼 놓을 수 없다. 행사장에서는 섬 토속음식을 맛볼 수 있는 10개 부스가 운영되고 오세득 셰프의 '섬 푸드 쇼'도 진행된다.

또 이곳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목포 종합수산물 시장과 해산물 거리가 위치해 첩따라 목포 5미(味)를 맛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싱싱한 회를 즐길 수 있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연간 100만명이 찾는 관광명소인 삼학도가 제1회 섬의 날을 계기로 전국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섬 페스티벌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삼학도 복원화 사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 목포시의 센트럴파크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목포시가 노인치매전담 요양시설 위탁운영자 공모에 나섰지만 두차례나 무산된 가운데 3차 공모에 나섰다. 치매예방교실 한 장면.

## 목포시, 노인치매요양시설 위탁운영자 3차공모

### 무산 땀 사업비 반납해야

목포시가 노인치매전담 요양시설 신축과 관련 두 차례나 위탁운영자를 공개 모집했지만 무산된 가운데 3차 공모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29일 목포시에 따르면 치매요양 시설의 효율적인 신축 추진을 위해 위탁자가 기부 채납한 부지에 목포시 치매전담요양시설(요양원 70명, 주야간보호 40명 수용 규모)을 신축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요양원이 23억4400만원, 주야간보호 시설이 4억6600만원이다.

앞서 목포시는 지난해 6월과 8월 2회에 걸쳐 목포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의료재단, 지방의료원 등을 대상으로 운영법인을 공개 모집했으나 신청자가 없어 무산됐다.

이에 따라 올해까지 노인요양시설 신축과 관련 위탁자 선정, 부지 기부채납, 설계 등 구체적인 업무들이 진행되지 않으면 사업비를 반납해야하는 위기에 처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목포시 노인장에

인과는 3차 모집공고를 내고 다음달 5일부터 13일까지 접수에 들어갔다.

공고안에 따르면 수탁 법인은 치매전담요양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부지 800㎡ 이상을 기부 채납하고, 위탁기간은 건축물 준공 후 5년이며 재 위탁이 가능하다.

선정은 수탁자의 적격성 25점, 시설 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60점,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 조성 15점 등을 배점으로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고점을 받은 법인이 선정된다.

오형순 목포시 노인장애행정관장은 "3차 공모도 무산되면 사업 자체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접수 결과 단독 신청 시에도 심의를 실시하고 다만 최소 충족점수(70점) 미만을 받을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목포시는 당초 3차 공모 시 위탁 운영자 선정 자격을 목포시를 포함한 무안군 등 인근 지역에 소재한 사회복지·의료법인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으나 목포시의회 반대로 무산됐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 “대한제국 여권 들고 목포 유람 하세요”

### 육단이 물지게 체험 등 '섬의 날' 관련 행사 다채

목포 근대역사문화거리 일원에서 제1회 섬의 날 행사와 관련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가장 눈에 띄는 프로그램이 개항문화거리 '목포 유람'과 '육단이 길 투어'다.

목포 유람은 대한제국 여권을 모티브로 제작한 리플릿에 1897 개항문화의 거리 내 9개 거점을 통과할 때마다 스탬프를 획득하면 종착지에서 기념품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유람 코스는 사슴슈퍼→ 근대역사 2관→ 경동성당→ 일본식 가옥(적산가옥)→ 기독교회→ 근대역사관 1관→ 갑자옥 모자점→ 건어물 거리→ 목포진(만호진)으로 짜여졌다.

앞서 목포시 도시재생과는 4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총 3회에 걸쳐 목포 유람을 시범 운영해 코스를 최종 확정했다. 이번 목포유람 행사를 위해 스탬프 북 2000부를 제작하고 경품도 5종 2000세트를 준비했다.

또 육단이 길 투어는 목포역을 출발해 동본원사, 정광 정혜원, 목포의 '목마르뜨'인 노적봉, 만인계터, 조선인 삶의 애환이 있는 풍나물 동네, 목포 최초 경찰서인 무안경무서터, 김우진 문학사실인 북고동성당, 북고초등학교, 전남 최초 교회인 양동교회, 목포 최초시장인 중앙식료시장, 가요계의 거장인 남진생가 등 19개소 주요 거점(총 연장4.6km)을 투어하는 프로그램

으로 3시간 정도 소요된다. 이와 함께 체험 이벤트로 만인계터에서 이뤄졌던 만인계 복귀 추첨이 재현되고,



개항문화의 거리 9개 거점을 통과해 스탬프를 받으면 종착지에서 경품을 주는 '목포 유람'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사진은 코스 확정을 위해 시범 운영된 목포 유람 행사 모습. 손에 든 것이 대한제국 여권이다. <목포시 제공>

육단이 의상을 입고 물지게를 직접 져보는 기회도 마련된다.

/목포=임영춘 기자 lyc@kwangju.co.kr

## 목포-가거도, 신안 북호-하의도 2개 항로 준공영제 도입

### 섬 주민 1일 생활권 가능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목포-가거도 및 신안군 북호-하의도 항로 등 2개 항로가 준공영제 대상 항로로 새로 지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준공영제가 실시되는 2개 항로는 목포-가거도가 기존 1회에서 2회로, 북호-하의도는 기존 4회에서 6회로 늘고, 추가 운항에 따른 운항결손액은 국비와 지방비에서 각각 50%씩 부담한다.

이번 준공영제 도입으로 당해 도서 주민들은 목포항에 나왔다가 필요한 일을 보고 당일 귀가가 가능해 섬과 육지 사이의 1일 생활권이 가능하게 된다.

현재 목포-가거도(흑산 경유)를 쾌속

선이 매일 1회(오전 8시 10분 출발, 오후 5시 30분 도착) 왕복 운항하고 있으나 가거도 주민들은 목포 도착 후 관공서, 병원 등 필요한 일을 보려면 2박3일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또 신안 북호-하의도 항로는 지난 4월 천사대교 개통으로 기존 4회에서 6회로 증회 운항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내륙 접근 기회 확대와 지역 농수산물의 적기 수송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규표 목포해양수산청장은 "국토 최서남단 가거도 지역의 해상교통과 정주여건이 개선되어 향후, 관광객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는 낙도지역 1일 생활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김준석 기자 kjs0533@

# 2020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 2019학년도 후기 대학원 신입생 추가모집

사랑과 감사의 65년  
1954~2019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Passion  
Vision  
Truth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 학부

###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학 과	수 시	정 시
인 문	신 학 과	30	15
	한국어교육학과	2	2
사 범	유아교육과	7	3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코칭평생교육상담학 전공)	31	3
예 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25	5
	총 계	95	28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 학부 전형일정

수시모집 · 원서접수: 2019. 9. 6(금) ~ 10(화) · 전형일: 2019. 9. 27(금)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19. 12. 26(목) ~ 31(화) · 전형일: 2020. 1. 7(화)

## 대학원

###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 학 원	과 정	모 집 학 과	모집인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24
		목회학과(D.Min.)	2
일반대학원	박사	유아교육학과(D.Ed.)	3
		신학과(Th.M.)	10
		유아교육학과(M.Ed.)	6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1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4

### ■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19. 8. 5(월) ~ 16(금)  
· 전 형 일: 2019. 8. 20(화)